



지림이 '감각 환경'을 주제로 오는 11월 16일까지 특별기획전을 연다. '자연'을 키워드로 한 구기정 작 '초과된 풍경'.



박혜원 감독의 '컬러풀 해피니스' 스틸컷.

예술은 그 자체로 '감각환경'이 된다

'아르고스'(Argos)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2개 이상의 눈을 가진 괴물이다. 많은 눈을 가졌다는 것은 그만큼 각각이 예리하고 특출하다는 의미다. 그리스시대 문학에서 괴물 아르고스는 낙원을 침탈하는 자를 제압하고 자신도 계약에 의해 죽음을 당한다.

예술적 시각에서 아르고스는 다양한 상상력을 환기한다. 고대의 문학과 신화는 오늘날에까지 다양한 해석과 확장의 가능성을 내재한다.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지림·센터장 김혁경)에서 16일 개막한 기획전 '감각환경'에서도 아르고스를 모티브로 한 작품을 볼 수 있다. (기자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였다) 전시장에서의 아르고스는 거대한 감각기관으로 구현돼 마치 살아 있는 생명체 같은 느낌으로 다가왔다.

오는 11월 16일까지 펼쳐지는 전시는 예술과 기술을 융합한 이색적이면서도 독창적인 작품들로 채워져 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출렁거림을 감지하는 거대한 감각 기관"으로 명명된 김윤철 작가의 'Argos-the Swollen Suns'는 보는 이에게 파노라마와 같은 상상을 제공한다.

김 작가는 "우주선이 대기와 충돌해서 강력한 입자를 발생하는데 이번 작품은 그러한 우주적 사건을 감각으로 포착하기 위한 일환으로 제작했다"며 "우주를 통과해 지구에 도달하는 미립자가 빛과 소리로 변환된다. 이때 발생하는 신호는 인간의 감각이 인식하지 못하는 새로운 차원의 언어"라고 설명했다.

기획전 주제 '감각 환경'(Sensory Milieu)은 프랑스 철학자 자크 랑시에르의 개념에서 차용했다. 예술 매체는 도구를 초월해 그 자체로 감각의 환경이 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번 기획전이 예술과 기술의 융합에서 나아가 기술과 자연,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를 새롭게 재구하는 데 초점을 둔 이유다.

G.MAP, 11월 16일까지 기획전 김윤철 등 국내외 작가 8명 참여 기술과 자연, 인간의 관계 재구성

작품은 크게 3개의 키워드로 구현됐다. '기술', '인간', '자연'이 그것인데 이들 키워드는 상호 교섭하고 융합, 전이되는 특징을 내재한다. 기술을 키워드로 한 작품에는 김윤철 작가 외에도 정승(이모르텔), 정다(Organic Matrix)의 작품이 출품됐다.

인간을 키워드로 한 김형숙의 '인간풍경-이미지들, 보여줄 수 없는...'은 8채널 비디오와 사진 작품이다. 제목이 시사하듯 외형상 존재하지만 사회적으로 배제된 인간들이 소환된다. 외상환자를 비롯해 노인 등이 주인공이지만 화면에는 실루엣으로 처리돼 있다.



'인간'을 키워드로 한 문창환 작 '윤리적 특이점-자기비판적 최면'.

김 작가는 "우리 사회에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며 "존재하지만 감각되지 않는 사람들을 보이게 하고 말하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감각이 필요하다"고 작품을 제작하게 된 배경을 이야기했다.

당진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지역을 조사하고 기록한 문창환의 '윤리적 특이점-자기비판적 최면'도 보이지 않는 책임을 부각해 인간에 대한 사유를 하게 한다.

자연을 키워드로 창작한 작품은 지구 생태계를 역동적이면서도 다층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한다. 구기정 작가의 '초과된 풍경'은 휴이나 나무 등을 인간과 연계되는 순환의 관점으로 제시한다. 구 작가는 "일상에서 지나치기 쉬운 자연의 요소들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봤다"며 "자연적인 존재와 인간적인 존재 사이의 상호 관계를 시각화했다"고 언급했다.

노리미치 히라카와, 세미콘다터의 작품도 과학 기술로 자연을 정치하게 감각하게 하는 미디어아

트 작품들이다.

김혁경 센터장은 "기술, 자연, 인간을 따로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오늘의 시대는 상호 융합과 결합은 자연스러운 양상"이라면서 "이번 전시를 매개로 지구상 또는 우주적 존재들이 갖고 있는 감각적 환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사유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박석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기술'을 키워드로 한 김윤철 작 'Argos-the Swollen Suns'.

광주여성영화제 본선 20편 11월 6~10일 광주극장 등서 상영

올해로 16회를 맞은 광주여성영화제가 본선 경쟁에 오를 작품들을 공개했다. 특히 올해는 장편 부문이 처음 신설된 만큼 관심이 모이고 있다.

영화제 집행위원회는 최근 '긴 장·단편공모' 본선 진출작 20편(장편 8편, 단편 12편)을 발표했다. 지난 7월 약 20일간 접수를 진행한 결과 총 474편(장편 35편, 단편 439편)이 출품되었고 예심을 거쳐 최종 상영작이 가려졌다. 지난해보다 응모 수가 늘어나면서 여성영화 창작의 저변이 한층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신설된 장편 공모는 장편 연출작이 2편 이하인 감독에게만 출품 자격을 부여해 차세대 여성 영화인을 발굴하는 데 방점을 뒀다. 본선에 오른 8편은 박이운정 감독의 '가능주의자', 박희진 작 '방방과 플라나리아', 오재형 작 '소영의 노력', 성스러운 작 '여름의 카메라', 김이항 작 '이방인의 텃밭', 문숙희 작 '인생세탁소', 신승은 작 '저는 행복한데요?', 임지수 작 '파기상점: 깨진 그릇 불이' 등이다.

예선심사 위원단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담았지만 모두 지금 이곳의 고민과 질문을 정직하게 풀어낸 작품들"이라며 "다큐멘터리에서는 여성주의적 통찰이, 극영화에서는 현실을 유머와 낙관으로 전환하는 힘이 빛났다"고 평했다.

단편 부문에서는 12편이 선정됐다. 황형진 감독의 '겨우살이'를 비롯해 남소현 작 '떠나는 사람은 꽃을 산다', 박혜원 작 '컬러풀 해피니스' 등이 관객들을 찾아올 예정이다.

본선 진출작은 오는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광주극장, CGV광주금남로,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상영된다. 이후 심사위원단과 관객심사단의 평가를 거쳐 장·단편 부문에서 각각 '긴 작품상', '특별상', '긴 관객상'이 폐막식에서 수여될 예정이다.

영화제 공식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에서 상세한 상영 일정과 예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전통에 오늘을 더하다 차세대 예인들의 무대



'차세대 명인전' 공연을 선보일 노하늘.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미래의 국악을 이끌 차세대 예인들이 한 무대에 선다. 전통의 뿌리를 잇되 젊은 감각으로 풀어낸 다양한 춤과 소리가 관객을 맞이한다.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20일 오후 3시 진도 진악당에서 기획공연 '차세대 명인전 2-전통의 숨결'을 무대에 올린다.

지난해 국악원 단원 중심으로 마련된 '젊은 예인전'을 전국 단위로 확대한 무대로, 네 명의 차세대 국악인이 직접 기획부터 출연까지 참여해 자신들의 색깔을 보여줄 예정이다.

첫 무대는 가야금 선율로 문을 연다. 김해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 최우수상, 전주대사습놀이 기악 대제전 종합대상 등 굵직한 이력을 쌓아온 이예원이 '김병호류 가야금산조'를 연주한다. 가야금 줄 위를 흐르는 즉흥성과 선율의 능력이 국악 특유의 깊이를 전하며 관객에게 차분한 몰입의 순간을 선사할 것이다.

뒤이어 전통춤이 무대를 수놓는다. 노하늘은 '국수호류 장한가'와 '이매방류 승무'를 통해 절제된 동작과 기품 있는 춤사위를 선보인다. 온나라 전통춤 경연대회 대통령상, 동아무용콩쿠르 은상 등 주요 대회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그는 젊은 무용수답게 단단한 전통 위에 생동감을 얹어 관객의 시선을 붙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황윤지는 '한영숙류 삼품이'와 '태평무'를 선보인다. 그는 송달국악대제전 대상, 온나라 경연대회 금상 등 전통춤 계보를 잇는 성과를 쌓아온 차세대 무용수다.

공연의 대미는 지휘자가 장식한다. 전주대사습놀이 가야금병창 장원, 서울 전국국악대전 대상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을 가진 그는 '육자배기'와 '흥타령'을 통해 남도의 흥과 풍류를 무대 위에 펼쳐낼 예정이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익숙한 재료 넘어 새로운 가능성 모색

'김지훈의 부조'(丸彫)전

17일까지 동구 이화갤러리

미술 장르 가운데 '형상이나 무늬 따위를 새기는 것'을 부조라 한다. 평면에서 형상을 도드라지게 구현하는 것을 고부조라 하며, 재료의 바탕보다 약간 드러나게 새기는 방식을 저부조라 한다.

저부조의 방식으로 형상화한 작품을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동구 예술의거리 이화갤러리에서 17일까지 펼쳐지는 '김지훈의 부조'(丸彫)전이 그것.

김 작가가 광주에서 첫 선을 보이는 전시로 저부조 작업의 작품들이 관객을 맞는다.

김 작가는 "그동안 개발해 온 새로운 작업 소재와 더불어 처음 시도하는 저부조 작업을 광주의 관객들께 소개하는 자리"라며 "익숙한 재료를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며 확장해온 제작업의 여정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시에 대한 의미를 전했다.

'지휘자의 고민'은 공연의 모든 것을 계산하고, 배치와 순서를 일일이 챙겨야 하는 지휘자의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고뇌와 사유, 창작에 대한 열망 등이 부조 특유의 양감에서 배어나온다. 작가가 개발한 재료를 활용해 직조로 제작했는데 터치 하나하나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쓴 흔적을 느낄 수 있다.

'파괴의 역사'는 나름 맛을 부린 여인의 일상을 담은 작품이다. 작가는 왜 '파괴의 역사'라는 제목을 붙였을까 한동안 깊은 생각을 하게 한다. 일반적인 부조와는 다른, 작가만의 재료와 방식을 투



'지휘자의 고민'

영한 데서 그런 제목을 내이망하지 않으나 싶다. 외국인이 아닌 한국적인 여인의 분위기를 발하는 작품은 그동안 봐왔던 부조에 대한 틀을 깨는 효과를 준다.

울주 출신의 김 작가는 홍익대 미술대 조소학과를 졸업했으며 한국 구상 조각전 등 단체전에 참여, 아리스 KIM's 갤러리 등 다수의 개인전 등을 열었다. 한국조각가협회, 홍익조각회, 한국구상조각회, 에스프리조각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석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인공지능 콘텐츠 공모전'

ACC, 10월 13일까지 접수

'내일의 아시아, ACC가 그린다'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김상욱, ACC)이 '인공지능(AI) 콘텐츠 공모전'을 연다. 접수는 오는 10월 13일까지이며, ACC의 미래 지향적인 모습을 AI를 활용해 그림, 사진, 영상 형태로 제작하면 된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내일의 아시아, ACC가 그린다'.

참가자는 AI도구를 활용 작품을 제작해 개인 SNS에 게재 후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키워드는 '아시아', '미래', '창·제작', '문화예술' 등이다.

심사는 AI 공모전 특성을 감안해 공공기관 최초로 'AI 자동 심사'를 진행한다. 1차 심사에서는 챗 GPT 등 AI 틀을 활용해 대중성을 비롯해 적합성, 인공지능 활용 여부 등을 살펴본다.

2차 심사는 AI 전문가 및 문화예술·미디어 콘텐츠 분야 전문가들이 AI 기획력 및 활용성, 적합성, 창의성 등 평가해 총 23개의 수상작을 최종 선정한다. 수상작은 오는 10월 30일 ACC 누리집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1명 200만원, 최우수상 2명 각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우수상 4명 각 50만원, 장려상 6명 각 30만원, 입선작 10명 각 10만원이 주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 참조.

김상욱 전당장은 "이번 AI 콘텐츠 공모전은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는 ACC의 미래를 AI를 활용해 그리고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로 ACC의 내일을 함께 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박석천 기자 skypark@kwangju.co.kr